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호 【루계 제23350호】 주체100(2011)년 2월 2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흥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곽범기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신흥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도처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 공장의 로동계급도 생산과 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공장에 도착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한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생산전망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증산의 불길세차게 타번지는 여러 직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줄지어 늘어서있는 새로 만든 기계들의 구조와 성능, 작용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를 합쳐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기계들을 많이 생산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당의 결정지시를 언제나 앞장에서 관철하여온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현대적인 기계들을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기간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２０여년전 생산현장에서 만나시였던 쌍둥이자매들인 박춘남, 박춘순동무들을 몸가까이에 불러주시고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따뜻이 물어주시며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３０년간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불타는 열정과 애국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그들의 소행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쌍둥이자매들은 자기들의 기름묻은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우리 로동자들의 손은 보배손이라고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영원히 가슴깊이 새기고 충성으로 보답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모든 일이 잘되고있는데는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며 앞채를 메고 달리고있는 지도소조 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크게 깃들어있다는 책임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우리의 일군들은 당정책을 지지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천속에서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신흥기계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세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공장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제품들의 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강재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벌려 기계제작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질좋은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것에로 끊임없이 지향하도록 생산조직지휘를 따라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명심하고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면서 공장의 로동자들을 위해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는 신념을 간직하고 수령님처럼 뜻이 원대하고 리상이 높게, 수령님처럼 배심이 세고 락관에 넘쳐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기어이 해내고 야마는 불굴의 기질, 무엇을 하나 창조해도 세계를 들었다놓게 하는 담대한 기상, 모든 일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완전무결하게 해놓는 혁명적일본새로 대고조시대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에 친히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백두의 선군령장을 따라 승리의 천만리를 끝까지 이어가리

지난 20여년간 근 600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걸출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흠모와 절절한 축원의 마음을 안고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 천만군민의 신념의 대오가 끝없이 물결치고있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백두산밀영이 개영된 때로부터 지난 ２０여년간 혁명의 성지를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의 수는 근 ６００만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는 사람들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고있는 일군들, 인민군군인들,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생산돌격의 전렬에 선 로력혁신자들도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들마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고있는 청년들도 있다.

또한 언어와 피부색, 정견과 신앙은 다르지만 백두산이 낳은 전설적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위대성에 매혹되여 찾아온 세계 수많은 나라의 벗들과 해외동포들도 있다.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땅에 련전련승의 영웅서사시를 새겨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지난해에 수많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았다.

지난해 2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 펼쳐졌던 백두산밀영결의대회장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탁월한 사상리론가, 령도예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인칭송의 열기의 분출인양 2월의 명절을 경축하여 터져오르는 아름답고 황홀한 축포가 천고의 밀림에 신비경을 펼치는 가운데 흰눈을 떠이고 거연히 솟은 정일봉은 찬연한 빛을 뿌렸다.

올해의 뜻깊은 2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는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정일봉에로의 답사행군길을 걸으며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열렬한 조국애를 심장깊이 체득하는 답사자들은 행군로정에서 회상기발표모임, 시랑송모임, 혁명가요대렬합창경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고 《승리의 길》을 비롯한 혁명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선렬들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대오앞에 붉은기를 펄펄 날리며 숭고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소백수골로 들어서는 답사단체들과 함께 백두산밀영의 뜻깊은 사적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할수 있는 도구들을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도 그칠새 없다.

절절한 축원의 마음을 안고 앞을 다투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았던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량강도안의 중학교졸업생들을 비롯한 청소년학생들은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고나서 백두광명성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를 찾은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담아 감상록에 뜻깊은 글들을 남기였다. 그들은 글에서 천출명장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완성될것이라고 하면서 강성대국건설에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들을 다지였다.

붉은기 높이 날리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신념의 대하가 정일봉기슭에로 더욱 세차게 굽이쳐 흐르고있다.

글 특파기자 전철주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1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한 기세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합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생산돌격투쟁을 과감하게 벌려온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첫달 전투목표를 빛나게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계공업성에서

기계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일터마다에서 생산돌격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성적인 공업총생산액계획을 １３０％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이 기간에 발전기와 자동차, 공작기계, 각종 전선류 등 중요지표별계획도 성과적으로 수행되였다.

성에서는 지난해 계획수행에서 앞자리를 차지한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는 더 높은 생산실적을 올릴 목표를 내걸었다. 성의 생산지휘일군들은 1월에 희천발전소 발전설비생산과 석탄공업부문, 농업부문에 보내줄 설비 및 부속품생산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경제조직사업을 따라세움으로써 높은 생산성과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계획수행기간 중요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성과를 이룩하였다.

1월계획을 보름이상 앞당겨 끝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발전설비생산자들은 희천발전소 발전설비생산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 또 한대분의 발전기고정자조립을 끝내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흥남가스화 2계렬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생산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많은 제관품들과 가공품들을 생산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전기기계공업관리국이 1월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평양３２６전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석탄, 전력공업부문과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낼 까벨과 전선생산을 힘있게 다그쳐 월계획을 2배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안주절연물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빈틈없는 사전준비밑에 집중적인 생산전투를 벌려 석탄공업부문에 보내줄 1.4분기 절연칠감, 견절연직생산과제를 앞당겨 끝내였다.

본사기자 리병춘

금속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올해공동사설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년초부터 생산돌격투쟁을 과감하게 벌려온 금속공업부문의 중요광산, 기업소들의 로동계급이 1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금속공업성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제철, 제강소들과 광산들에서 더 큰 혁신적성과가 이룩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년초부터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각지 금속공업부문의 제철, 제강소들과 광산,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뜻깊은 이해의 첫달부터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난해 주체철생산체계확립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해나가면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원료를 절약하면서도 선철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는 립장에 확고히 서서 제강시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쇠물량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올해 첫달 강철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재령, 은률광산들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례년에 보기 드문 강추위로 생산조건이 불리하였지만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철광석생산을 훨씬 장성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본사기자 강명일

수력발전관리국에서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아래 발전소들에서 올해의 첫달에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한 결과 관리국적인 1월 전력생산계획이 기한전에 넘쳐 수행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과 발전설비보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서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였다. 특히 책임일군들이 녕원발전소, 태천발전소 등 현지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줌으로써 전력생산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계획수행에서는 수풍, 위원, 장자강, 태천, 남강발전소들이 남다른 모범을 보이였다.

수풍발전소, 위원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높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나감으로써 1월 전력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였다. 장자강, 태천, 남강발전소들의 전력생산자들도 수력구조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계획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강계청년, 서두수,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발전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발전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책임적으로 하고 겨울철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잘하여 맡겨진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김일성민족의 영광 만대에 빛나리

강성대국의 새봄을 불러오는 환희의 2월

위대한 어머니당을 따라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해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장엄한 혁명적대진군의 발걸음이 강산에 메아리치고있는 내 조국땅에 뜻깊은 2월이 왔다.

천만의 가슴마다에 주체혁명위업완성에 대한 필승의 락관과 미래에 대한 끝없는 희망을 벅차게 안겨주는 승리의 2월, 환희의 2월이다.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륭성번영과 잇닿아있는 민족대통운의 2월의 이 아침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쳐주시는 희세의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만민이 칭송하는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마음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으로 하여 해솟는 바다처럼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있는 령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한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한 인민의 미래는 그 수령의 현명성에 달려있다.

인민이 누리는 복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수령복, 장군복이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시고 이 땅우에 이민위천의 뜻 빛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 어느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하시며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동지!

그이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천만군민의 격정의 웨침이 2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있습니다.

진정 온 민족을 우주와 같은 넓은 품에 안으시고 태양의 인력으로 천만군민을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실현의 길, 찬란한 미래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그이이시다.

뜻깊은 2월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은 하얀 서리꽃에 휩싸여있는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끝없이 달려간다.

은백색의 눈꽃이 쏟아져내리는 백두밀림의 그 귀틀집에서 2월의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였다.

숭엄한 봄정기가 정일봉을 휩싸안던 환희의 그날 백두밀림에 메아리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격정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 《동포여 보느냐 듣느냐 백두산에 김대장 뜻 이을 광명성 솟았다》, 《3천리강산에 밝은 빛 뿌리며 솟아난 백두광명성 만세》…

우리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안고 탄생하신 백두산의 아들, 희세의 위인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매혹의 감정은 그렇듯 얼마나 뿌리깊은것인가.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조선을 찬란한 미래에로 이끌어나가시기를 바라는 민족의 그 념원을 심장깊이 간직하시고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혁명의 수십성상은 백두에서 휘날린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김일성조선의 존엄사시적인 투쟁행로로 빛나고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걸으신 고결한 자욱자욱으로 수놓아져있다.

선군을 조국수호의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선군의 길로만 곧바로 력사의 기관차를 몰아오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불멸할 업적을 전하며 2월의 하늘가에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가 펄펄 휘날린다.

올해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돐이 되는 해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은 현지시찰의 그날에 위대한 마음이 놓일것 같다고 하시면서 철 해의 현지지도를 시작하신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선군령도실력이 더욱 힘있게 과시된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혁명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확고한 의지, 병사들을 위하시는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천리방선초소들을 찾고 찾으신 경애하는 그이의 손길아래 우리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잊을수 없는 주체84(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에 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천만군민의 심장을 쿵쿵 울리며 메아리쳐온다.

나는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도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셨던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사들을 찾아가신 전선길은 낮과 밤, 명절과 휴식일이 따로 없었고 마른날, 궂은날 가림이 없었다.

어느해 명절날에도 군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쇠는지 찾아가봐야 령너머의 최전연부대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휘관들에게 최고사령관이나 동무들이나 전사들이나 다 혁명의 한길에 나선 혁명전우들이라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였다.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은 혁명전우!

력사에 병사들에 대한 이런 숭고한 믿음을 지니고 전군의 혼연일체를 실현한 최고사령관이 있었던가.

가시는 곳마다에서 무적필승의 령활한 전법을 밝혀주시고 병사들에게 친어버이사랑을 가슴가득 부어주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출명장의 변함없는 충대신념과 의지를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혁명이란 목적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이라고,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색도 실천도 다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당창건 65돐이 되는 지난해에 그이께서 조국땅 방방곡곡에 찍으신 숭고한 애국의 발자취가 추억의 파도를 몰아온다.

—30℃를 오르내리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는것으로 뜻깊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은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마지막날까지 멈춤을 몰랐다.

희천전선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최전선이기에 우리 장군님 때로는 석수떨어지는 물길굴에도 들어가시고 때로는 인민군군인들의 미래관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워주시면서 이 격전장을 거듭 찾으시여 대고조진군의 최대속도가 창조되도록 하신것 아니랴.

16년만에 다시 쏟아지는 비날론을 보시고 그리도 기쁘시여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준공을 경축하는 함흥시군중대회에 찬눈을 맞으시며 참석하신 위대한 장군님,

언제 어디서나 인민생활문제를 구상하시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시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웅대한 구상과 완강한 실천력은 주체, 주체비료폭포를 안아왔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희한한 경공업, 봉사기지들이 도처에 솟아나는 현실을 펼치였다.

지난해의 쌓이고쌓인 피로를 잠시나마 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바랐건만 올해 1월에만도 혹심한 강추위를 헤치시며 인민경제활성화를 위해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참으로 자신의 모든 기쁨과 인생의 보람도 오직 인민들의 웃음소리에서 찾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의 길에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열렬한 사랑의 화신, 자애로운 어버이에게 어찌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매혹되지 않을수 있으며 그이를 온넋과 심장으로 따르고 받들지 않을수 있을것인가.

민족행운의 2월, 선군조선의 휘황한 앞날을 펼친 경사의 2월은 천만군민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만이 인민을 열화같이 사랑하는 고결한 감정을 지닐수 있다는 진리, 사랑의 화신을 령도자로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의 미래는 영원히 밝고 창창하다는 신념을 더 굳게 새겨주고있다.

총공격전의 진두에서 달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나깨나 못 잊는 간절한 그리움속에 언제나 환희의 2월을 안고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성대국승리를 이룩하고 김일성민족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사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뜨겁게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김일성민족의 후손만대의 번영이 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오신 영웅서 본사기자 계성남

백승의 기치, 만능의 보검

선군령도업적,

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중의 업적이다.

장장 수십성상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인민의 격찬속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필승불패의 정치이며 혁명승리를 위한 만능의 보검입니다.》

강성대국승리를 위해 우리 장군님께서 수십성상 헤치신 선군혁명천만리길이 파도쳐온다.

성스러운 그 길우에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로작들이 빛을 뿌린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고전적로작들에 줄기차게 관통되여있는것은 바로 백두령장의 선군의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들에서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을 우리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며 그 어떤 엄혹한 정세와 시련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밝혀주시였다.

선군정치는 만능의 보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밝혀주실수 있는 혁명의 철리이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신분, 치렬한 반미대전의 격전장에서 총대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새기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백두산총대와 뜻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는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이야말로 백승의 기치, 부강번영의 만년담보이라는 혁명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시였다.

불멸의 로작들에 빛발치는 백두산장군의 선군의 의지를 절감할수록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들이 가슴치며 되새겨진다.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또다시 노예로 되느냐 하는 력사의 갈림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단코 추켜드신것은 정의의 보검, 필승의 기치 백두산총대였다. 그것은 대용단이였다.

오늘도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이며 선군의 산악 오성산만이 아닌 이 땅의 곳곳에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이 빛을 뿌린다. 준엄한 시련의 그 시기 결사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시며 최전선길을 헤치신 백두령장의 모습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대도 인민은 못 잊는다.

준엄한 최전연의 판문점초소도 찾으시고 사나운 날바다길도 기꺼이 헤치시며 무적의 군력, 막강한 국력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력사의 그 나날 그이께서는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다!

선군은 우리의 생명이고 자주이며 존엄이다!

민족의 존엄, 세상에 이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허나 그것은 바란다고 해서 절로 이루어지는것이 결코 아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위인을 모시지 못한탓에 왜적에게 국토와 국권을 강탈당하고 《시일야방성대곡》의 피눈물을 뿌려야 했던것이 어제날의 이 나라 인민의 비참한 운명이였다.

망국노로부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이 경이적인 사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백두산총대가 떠올린 기적적승리이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가 또 한분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세대와 년대를 이어 억세게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뜨거운 격정없이야 백두령장의 성스러운 전선길을 어이 노래할수 있겠는가.

어느해 가을날, 년초부터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으로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헤쳐야 할 전선길을 앞에 두시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궂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가는 전선길은 나의 삶과 투쟁의 전부입니다!

열렬한 그 뜻을 안으시고 오늘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조국수호의 최전선길에 계신다.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승리를 앞당겨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온 나라의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김정일장군찬가가 2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친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본사기자 김인선

열렬한 칭송의 목소리

뛰여난 품격과 자질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절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는 인류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주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태양이 있다. 그 태양은 바로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전 쏘련작가동맹 제1비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태양과 같이 밝은 빛으로 인류에게 광명을 주시고 태양과 같이 뜨거운 열로 인류를 품어주시며 태양과 같이 위력한 힘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받들어 모신것은 우리모두의 크나큰 행복이고 기쁨이며 최대의 영광이다.》(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은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인 동시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의 명절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지략,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신다.》(이딸리아통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의 현실은 수령이 위대하면 인민도 위대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겹쌓이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오직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본사기자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를 펼치며

사상리론의 영재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있으며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에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일찌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던 1960년대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하여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것을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63(1974)년 2월 19일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하여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선포하신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 지도사상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운 력사적인 리정표로 되였다.

그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창조의 거장

수십성상에 달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령도사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하여 이 땅우에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수많이 일떠세운 창조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하나의 창조물을 건설해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만년대계로 일떠세워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창조원칙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970년대 경제건설, 문화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 1980년대에는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속에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서해갑문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섰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구월산, 칠보산, 룡문대굴을 비롯한 많은 명승지들과 명소들이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새롭게 꾸려지게 된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참으로 선군으로 존엄높은 이 땅우에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혁명의 천하지대본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명개척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일찌기 일심단결문제를 혁명의 명맥을 수호하고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십성상에 달하는 혁명령도의 나날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중심의 단결론을 틀어쥐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당과 군대, 인민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1970년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당, 전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신것은 우리 혁명대오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꽉 들어찬 사상적순결체, 불패의 혼연일체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지난 10여년간 선군의 기치밑에 력사에 류례없는 혼연일체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선군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확고히 실현됨으로써 우리의 일심단결은 수령결사옹위를 근본정신으로 하고 총대신념으로 억척같이 다져진 선군혁명단결로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용진

소백수의 설경

무릇 누구나 2월을 맞이할 때면 백두산밀영에로 달리는 마음을 금치 못하군 한다.

2월의 백두산밀영에 마음을 세워보느라면 소백수골의 이채로운 설경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강산을 꽝꽝 얼구는 혹한에도 이상하게 얼지 않고 눈덮인 원시림속을 가로질러 흐르는 소백수, 그 뽀얀 물안개에 싸여 나무가지들마다에 만발하게 핀 하얀 서리꽃, 햇솜같은 눈이 덮인 개울복판과 물녘의 크고작은 돌우에도 물김이 서려올라 털이 보시시한 흰곰들이 웅크려 앉은듯 한 바위절경, 밀림속의 아름드리나무들과 소담한 풀잎에도 투명한 결정체가 맺히고맺혀 구슬처럼 아롱이고 떠오르는 아침해살로 아득한 밀림의 바다에 눈부신 은빛세계를 펼친 희한한 설경…

추운 겨울이면 서리꽃이 피지만 소백수의 설경처럼 푸른 절승에 흰 절승을 더한 최고절경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격정을 한껏 터쳐주지는 못할것이다.

어느해인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밀영의 설경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백두산밀영에 오래간만에 와보았는데 눈덮인 혁명전적지의 풍경이 참으로 볼만 합니다.》

소백수!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알린 이 력사의 기슭은 주체혁명의 새로운 대통운이 열린 유서깊은 성지일뿐아니라 흰눈철학의 뿌리가 내린 참다운 인생관의 요람이기도 하다.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의 탄생과 더불어 바로 여기에서 흰눈처럼 순결하고 흰눈처럼 용감하고 흰눈처럼 억세게 살자는 백두산인생관이 력사상 처음으로 빛발쳤음을 소백수의 설경은 소중히 전하고있다.

눈덮인 백두밀림에서 탄생하시여 사나운 눈보라소리를 혁명의 교향곡마냥 들으시며 성장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흰눈과 더불어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력사에 깊이 새기시였던가.

백두산이 천출위인 위대한 장군님께 처음으로 펼쳐드린것은 다름아닌 백설의 눈부신 은빛세계, 소백수골특유의 장쾌한 설경이였다.

오래전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책갈피속에 추억깊은 이런 내용의 글발을 남기시였다.

나는 눈내리는 아침을 사랑한다.

순식간에 온 천지를 상쾌함과 정갈함으로 덮어버려 하나의 동화적인 신비경으로 만들어놓는 이런 아침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에 태여나 처음으로 본 황홀경이 은세계였기때문일가, 아니면 억년 녹지 않는 장설에 첫 자욱을 찍었기때문일가, 혹은 우리 조국의 려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였기때문일가.

눈내리는 아침이면 나의 마음이 끝없이 달리는 곳이 있다. 그곳은 조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백두산이다.

지금쯤 아마 백두산은 장설로 뒤덮였을테지. 천고의 밀림, 총탄이 울부짖던 결전장들도 하얀 눈속에 하루의 시작을 서두르며 새벽을 맞이하고있을테지.

아, 백두산!…

이렇듯 백두산에 뿌리를 둔 우리 장군님의 흰눈에 대한 남다른 정서를 숙연히 전하려 소백수의 설경은 언제나 그리도 아름답게 피여있는것 아니랴.

지금도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시여 령하 수십℃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눈보라길우에 뜻깊은 자욱을 찍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잊을수 없다.

선렬들의 붉은 피가 뜨겁게 슴배인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붉게 물들여주었고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 혁명가의 강의성과 신념을 검증하며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새겨온 백두의 흰눈길을 걸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심정이 그때 얼마나 뜨거우시였으랴.

백두산에 대한 사랑을 곧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간직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소백수의 그 아름다운 설경처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눈내리는 겨울이면 더욱 결연히 현지지도의 길에 나서신다. 소스라치는 위험도 가벼운 웃음으로 물리치시고 눈덮인 험한 산야를 넘나드시며 백두령장의 불굴의 위인상을 온 세상에 더 높이 떨치시였고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뜨겁게 찍으시며 력사의 갈피갈피를 수놓으시였다.

그래서 한송이의 하얀 눈꽃을 보아도, 눈덮인 수도의 밤거리를 거닐면서도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생각으로 심장을 끓이고 소백수의 설경과도 같이 희한하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서 후더워지는 마음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 인민이다.

흰눈덮인 백두산이 사나운 겨울의 꽃으로 펼치는 소백수의 설경, 정녕 그것은 끝없는 헌신으로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가꾸시는 우리 장군님의 강의한 신념과 의지의 상징이 아니랴.

소백수의 설경은 아직 신비롭고 황홀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채 드러내지 않고있다.

자기의 위대한 주인, 경애하는 장군님께 천하제일경을 보여드리게 될 날을 기다려 그리움을 한껏 간직하고.

본사기자 김준혁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사상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어랑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사업에서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당선전일군들이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에 더 큰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왕성한 사업의욕과 지칠줄 모르는 정력으로 령도업적교양사업을 심도있게 벌려나가는 미더운 당선전일군들중에는 어랑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도 있다.

사상교양사업에서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한 교양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진행함으로써 최대의 실효를 보장하는것, 이것이 바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올해의 총공격전을 추동하는데서 이곳 군당일군들이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내용이 좋을뿐아니라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지난 1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갈 부서일군들과 담화하며 준비상태에 대하여 료해하던 군당위원회 비서 원공학동무는 일부 일군들이 사업을 앞질러 작전하는데서 빈구석이 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군당비서는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의 사업을 스스로 돌이켜보았다.

물론 부서일군들 누구에게나 령도업적교양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고히 자리잡혀있었다. 또 실지 부서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령도업적교양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을 창발적으로 전개해왔었다.

두남협동농장과 어대진청년제염소를 비롯한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단위의 종업원들이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투쟁하도록 령도업적교양사업을 꾸준히 해나가는 한편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누구나가 군에 어려있는 불멸의 령도사적내용을 깊이 체득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군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군연혁소개실과 군구호문헌보존교양실에 대한 참관사업을 널리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강사들이 대고조격전이 벌어지는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군에 깃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에 대한 이동해설강의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군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통한 교양사업, 방송선전차에 의한 선전, 학습과 강연을 통한 교양사업 등 여러가지 다양한 형식과 방법들이 활용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일군들이 성과가 좋을수록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할 대신 자기 사업에서 만족을 느끼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은 당의 기초축성시기인 1970년대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곳 선전선동부의 사업에 아로새기신 불멸의 령도사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투쟁한다고 하면서도 실천과 결부하여볼 때 아직도 응당한 높이에서 구현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령도업적교양에서 성과가 클수록 자만하지 말고 자신들에 대한 요구성을 더욱 높이도록 일군들과의 사업에 큰 품을 들이자. 올해 총공격전의 북채를 쥔 그들의 심장이 펄펄 끓어번질 때 군의 사상사업전반에서 보다 큰 혁신과 비약을 기대할수 있다.)

원공학동무는 군당책임비서 한규섭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을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책임일군들은 력사의 그날 부서의 하부지도사업정형을 료해하시면서 사업방향과 방도를 일일이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누가 어느 정도 깊이 체득하고있는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철저히 실천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니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을 강화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닌 선전선동부일군들이 더욱 분발하게 되였다. 그리고 령도업적교양사업에서 집행자로서뿐아니라 대중의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여야 할 주인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똑똑히 차지하게 되였다. 선전선동부일군들속에서 군당위원회에 어려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사업이 보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과정은 그들이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그이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과정으로 되였다.

선전선동부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들끓는 생산현장들에 달려가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니 령도업적교양사업의 실효는 더욱더 커졌다.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교양을 올해 총공격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열쇠로 틀어쥐고 사색과 활동의 모든 공정들을 그것으로 일관시켜나가는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의 모습은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말없이 달구어주었다.

어대진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장들에서 농사차비가 힘있게 추진되고 지방공업공장들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 다그쳐지는 등 군안의 전투장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은 옳은 묘술과 방법론을 가지고 령도업적교양을 해나가고있는 군당위원회사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령도업적교양에서도 사색이 깊어야 실효가 크다.

당선전일군들이 진지하게 사색하며 얼마나 좋은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쥐고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령도업적교양사업의 결실이 좌우되게 된다.

이곳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일군들의 사업은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노래소리 높을수록 실적이 오른다

철산군 수부리당위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민들의 애국적헌신성과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켜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니다.》

2월의 뜻깊은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리당비서 김정억동무는 생각이 깊어졌다.

(공동사설을 받들고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흠모하는 노래와 시들을 널리 부르고 읊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심화시키자.)

그의 이런 결심은 부비서 김경식동무를 비롯한 리당일군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예술선동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올해 정초부터 벌려온 리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깊이 절감한 그들이 통하여였다.

리당위원회는 2월의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작업반별로 진행할 예술소품공연종목들과 그 주제와 내용들을 알려주면서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이번에 진행할 예술소품공연에는 몇개 작업반의 공연종목들을 선정하여 제한된 농장원들만 출연하던 지난 시기의 고정격식화된 틀을 깨고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다 참가하도록 하면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벌리게 하였다. 리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일군들도 작업반의 농장원들과 함께 어깨나란히 예술소품공연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 소식이 작업반들에 전해지자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들끓었다. 저저마다 다른 작업반들에 뒤지지 말자고 하면서 농사일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쉴참이나 저녁시간이면 노래련습, 악기다루기, 시읊기 등으로 농장벌과 마을들을 들썩하게 하였다.

리당일군들은 작업반들에서 선정한 예술소품종목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고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이 뜨겁게 반영되도록 이끌어주었다.

리당비서를 비롯한 리당일군들은 작업반들을 찾아다니면서 농장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과 령도, 고매한 풍모의 위대성을 담은 노래와 시, 화술작품들을 선정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합창, 중창, 독창, 사이극, 합창시, 대화시 등 종목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였다.

리당일군들과 작업반의 초급일군들, 당원들과 농장원들 모두가 지혜를 합치고 품을 들인 결과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하고 흠모하는 많은 노래들과 시, 화술작품들을 준비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리문화회관과 작업반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들에서는 저녁마다 농장의 일군들과 작업반의 초급일군들, 당원들과 농장원들모두가 참가하는 예술소품공연을 위한 련습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였다.

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리기동예술선동대 대장 박정복동무는 설화와 합창, 선동극, 선동이야기, 혼성2중창 등 다양한 종목의 예술소품들의 형상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작업반들을 찾아 뛰여다니였다.

예술소품공연련습은 또 하나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성수가 나서 농사일을 해제꼈다. 하루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서 예술소품공연련습에 참가하려고 일손을 다그치군 하였다.

군중문화활동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례년에 없이 보기 드문 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마음의 랑개를 바싹 조이며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개바닥파기와 토지개량 등 당면한 농사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것이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하고있는 리당위원회의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노래가 높이 울리는 곳에서 실적도 부쩍 오른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방송기재를 통한 선군사상학습

송도원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뜻깊은 2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요즈음 송도원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종업원들속에 우리 당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들의 사업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방송기재를 통한 선군사상학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사상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방법에서도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얼마전 재봉5작업반 생산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의 선군사상학습정형을 알아보던 초급당비서 리분희동무는 작업반장 박한남동무로부터 이런 의견을 듣게 되였다.

생산공정들이 치차와 같이 맞물려돌아가는 작업조건에 맞게 선군사상학습을 방송기재를 리용하여 좀더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였다.

긍정할만 한 의견이였다. 단위의 특성에 맞게 방송기재만 잘 리용해도 학습시간을 따로 떼여내지 않고도 종업원들속에 선군사상의 원리와 내용을 깊이 체득시킬수 있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초급당위원회가 여기서 잘한것은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을 잘 준비시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해설하는 해설문들을 특색있게 만들어 방송기재를 통한 교양사업에 적극 리용한것이다.

이를 위해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일군들부터가 선군사상의 원리와 내용을 깊이 파고드는데 선차적힘을 넣었다. 선군사상과 관련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을 빠짐없이 깊이 연구하는것과 함께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수록한 정치도서들도 탐독하면서 해설문에 담아야 할 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초급당위원회가 잘한것은 방송기재리용의 계기성과 시간성을 옳게 보장하여 그 실효성을 높인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하여도 계기성과 시간성을 옳게 보장하지 못하면 능히 거둘수 있는 성과도 더 거둘수 없게 된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계기와 공정들을 잘 리용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실록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실례로 작업반종업원들의 매 시간별에 따르는 생산실적정형을 알려줄 때에는 먼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강성대국의 진군길을 앞장에서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자료들을 실감있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높은 실적을 낸 종업원들은 방송기재를 리용하여 높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군사상의 원리와 내용을 깊이있게 해설한 해설담화자료들과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칭송한 노래들을 방송기재를 통하여 널리 선전보급함으로써 종업원들의 학습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렇듯 선군사상학습에 방송기재를 적중히 리용하니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학습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어 좋았고 실천과 결부되여 좋았다.

실정에 맞는 학습방법론은 이렇듯 중요하다.

본사기자 최영길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학습하고있다 — 선교구역인민병원에서 —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돐 중앙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로작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30돐 중앙보고회가 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장에는 또한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내각총리 최영림동지와 전하철, 조병주내각부총리들, 성, 중앙기관, 품질감독부문 일군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품질감독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육성록음으로 청취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최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70(1981)년 2월 2일 고전적로작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식의 품질감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로작에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의 권능을 높이고 사업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이 부문 일군대렬을 잘 꾸릴데 대한 문제 등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고 말하였다.

로작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품질감독사업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의 애국심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시였으며 경제관리와 생산과정에 대한 국가적인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도록 간곡히 가르쳐주시였으며 질좋은 제품들을 보시고는 모든 공로를 생산자들과 품질감독일군들에게 돌려주시였다.

보고자는 품질감독사업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과학적인 품질관리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규격화사업과 계량, 품질분석 등 품질관리를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국가적인 품질감독기관을 내오도록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지도와 법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규격화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최근년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개선되는 등 나라의 품질감독사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보고자는 이 모든 성과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품질감독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를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을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생산단위에서는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고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옳게 인식하고 과학적인 품질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워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이 주체적인 품질감독사상과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의 법적권능을 강화하고 각급 품질감독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며 품질감독사업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최단기간내에 끌어올려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과학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세우고 국제적인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생산단위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과 2월2일제품창조사업을 적극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온 사회에 국가규격을 준수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전국적인 규격보급망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계량 및 분석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수출입품에 대한 검사와 검역사업을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들의 침습경로를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모든 일군들이 품질감독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물길보수를 7일동안에

대동군에서

새해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편지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대동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단 7일동안에 저수지에 물을 채워넣는 물길을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당의 은정속에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건설된 개천—태성호물길의 물을 논에 대게 되는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올해에 군에서는 알곡생산을 보다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군에서는 공동사설의 과업대로 올해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물문제해결에서 찾았다.

군일군들은 이를 위하여 개천—태성호물길의 물을 저수지로 끌어가는 물길을 보수할 작전을 펼치였다. 일군들이 현장에 지휘부를 옮기고 전투지휘를 대담하게 해나갔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것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공동사설의 정신을 깊이 해설해주었다.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있게 울리는 가운데 공사에 동원된 농업근로자들은 추운 날씨조건에서도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방대한 량의 토량을 처리하고 수백m의 물길제방에 장석을 입혀야 하는 공사를 맡아나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언땅을 까내고 돌을 운반하는 작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반석, 가장, 순화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매일 작업과제를 넘쳐 수행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연곡, 성삼협동농장에서 달려나온 농업근로자들은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장석공사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였다. 공사속도가 높아갈수록 이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혁신자들의 대렬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물길보수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였다.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당면한 농사차비에서 계속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한성일

누구나 자랑하는 보배공장

서창영예탄부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에서 전체 인민이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서창영예탄부공장은 종업원이 얼마 되지 않고 규모도 작은 공장이다. 하지만 이 공장은 탄광들에서 절실히 필요한 압축공기배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규격의 고압비닐관과 물관, 박막을 생산보장하는것으로 하여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없어서는 안될 생산기지, 누구나 자랑하는 보배공장으로 손꼽히고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질도 좋아 탄부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10여년동안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또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뜨거운 공장애를 지니고 일터를 잘 꾸리였으며 기술혁신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배인 안수길동무의 말에 의하면 한해에 수만m나 생산되는 각종 비닐관을 기업소안의 탄광들은 물론 여러 단위들에도 보장하고있다고 한다.

생산능력이 큰것만이 자랑이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생산물의 원가를 훨씬 낮춘것이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기간 기술혁신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에 보다 현대적인 기술을 받아들이였다.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질좋은 비닐관을 생산하는것만 보아도 그렇다. 종전의 설비들을 개조하여 전력을 훨씬 적게 쓰면서도 생산능력을 1.3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는 이 비닐관생산공정에서는 여러가지 규격의 비닐관을 한개의 사출기에서 질좋게 뽑아내고있다. 전기를 적게 쓰면서 유휴자재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한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뿐이 아니다. 공장에 꾸려진 그쯘한 생산기지들은 어느것이나 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일떠세운것이다. 여기에는 이들의 뜨거운 공장애와 조국애가 깃들어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년초부터 많은 자재를 확보해놓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본사기자

성실한 부림소관리공

삭주군 옥강협동농장 제1작업반 농장원 황의남동무는 30여년간을 부림소관리공으로 성실히 일해오고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그는 지난 기간에 그러했던것처럼 올해에도 부림소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들을 원만히 갖추어놓았다. 그리고 부림소영양관리를 위해 남모르는 정성을 다하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부림소품평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그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부림소관리를 잘함으로써 당면한 거름실어내기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올해농사에서 한몫단단히 할 결의에 넘쳐있는 그는 하루일이 끝난 후에도 부림소관리에 힘을 넣고있다. 영양가높은 먹이도 주고 다른 이상현상이 없도록 대책도 세우고있다.

그리하여 농사차비가 한창인 요즘 거름실어내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부림소관리를 더 잘하여 맡겨진 일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그의 모범을 따라 다른 부림소관리공들도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하고있다.

참된 애국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 있다는것을 자각한 그는 늘 부림소관리에 정성을 다하고있다. 이런 그를 보며 이곳 사람들은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로농통신원 김성건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뜨겁게 굽이친다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만발하는 불멸의 꽃

제15차 김정일화축전준비 활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제15차 김정일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전에는 무력기관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게 된다.

제15차 김정일화축전이 진행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각 도들에서는 불멸의 꽃 전시회가 진행되며 시, 군들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참관사업이 있게 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성대히 진행될 제15차 김정일화축전을 앞두고 수도 평양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그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불멸의 꽃들이 앞을 다투어 활짝 피여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뜨겁게 굽이치게 될 이번 축전의 의의를 깊이 자각하고 그 준비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원회에서는 이번 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위원회, 성, 중앙기관들과 지방의 단위들을 대상으로 김정일화재배일군강습을 진행하여 불멸의 꽃을 열렬히 사랑하고 활짝 피우려는 우리 인민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꽃재배수준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위원회의 일군들은 중앙과 지방의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들에 내려가 불멸의 꽃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기술지도를 따라세웠다.

이와 함께 개별적인 참가신청자들의 가정들에도 나가 꽃의 생육상태를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성의껏 풀어주고있다.

그리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경공업성,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성, 외무성, 수산성, 보건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례년에 없는 강추위속에서도 불멸의 꽃을 한송이도 상하지 않게 훌륭히 피워냈으며 이에 뒤질세라 대흥지도국, 경흥지도국, 외교단사업국, 대성은행 등 많은 단위들에서도 태양의 꽃을 더 크고 아름답게 피우며 그 보존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뿐만아니라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자강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서도 중앙축전과 때를 같이하여 진행되는 도전시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으며 전국적으로 수십상의 김정일화를 피운 가정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에서는 이번 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축전장을 훌륭히 꾸리며 축전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국장 배민옥, 부국장 김승길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제15차 김정일화축전장과 그 주변, 평양시내의 곳곳에 축전선전화를 게시하며 축전장내부와 외부를 보다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장식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특히 이곳 일군들은 도안가들과 마주앉아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고있는 내 조국의 벅찬 현실과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이런 놀라운 현실을 계속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제15차 김정일화축전에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진지한 토의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축전장중심벽면에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 그아래에 최고사령관기와 조선로동당기, 람홍색공화국기를 품위있게 형상하며 축전장의 한가운데는 그이의 건강을 축원하는 인민의 한마음을 담아 대형꽃바구니를 형성할데 대한 방안이 모두의 지지찬동을 받았다.

이와 함께 축전장 량쪽에 세우게 되는 대형전광판들도 내 나라의 푸른 하늘과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지으신 송시와 우리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강성대국건설위업의 필승불패성을 상징하는 여러가지 표어들로 장식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축전장내부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룡정양어장의 희한한 풍경을 전광장치로 생동하게 형상하도록 하였으며 축전장외부정면장식도안과 측면장식도안도 독특하게 완성하게 하였다.

이번 축전의 주제는 《김정일화 만발한 2월은 만민칭송의 봄》이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담아 붉게 피운 수만상의 불멸의 꽃으로 아름다움과 황홀경의 절정을 이루게 될 제15차 김정일화축전,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되게 될 불멸의 꽃 축전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마음이 끝없이 굽이쳐오게 될 그날을 그려보며 위원회안의 전체 일군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그 준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백성근

서리꽃계절에 붉게 타는 마음

백두산밀영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지배인 김경남동무와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정치적신념으로 간직되고 혁명적량심과 도덕적의리에 기초하여 생활화될 때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한해치고 제일 추운 날이라는 대한전날에 백두산밀영의 0시 기온은 령하 31.4℃를 기록하였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쳐도 봄날처럼 따뜻한 온실에서 맑은 이슬을 함초롬히 머금고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친 불멸의 꽃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는 지배인 김경남동무의 충혈진 눈가에는 안도의 빛이 어리였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새벽이면 잠들수 없는 그였다.

이윽고 그의 눈길은 온도계에 가닿았다. 눈금은 25℃를 가리키고있었다.

《꽃들이 또 봉오리를 터쳤어요!》

처녀재배공들인 최윤경, 김은별동무들이 탄성을 올리며 하는 말이였다.

김경남동무는 절로 마음이 흐뭇해져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 온실안을 한바퀴 빙 돌았다.

그의 하루일과에서 제일 기쁠 때는 이런 순간이다.

머나먼 황북땅에서 살던 김경남동무가 누이동생들과 함께 맏형을 따라 백두산밀영에 들어와 불멸의 꽃들을 애지중지 키워가던 그때로부터 이제는 20년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꿈결에도 잊지 못할 주체82(1993)년 8월, 백두산밀영을 찾으시고 백두산밀영고향집뜨락을 붉게 물들이며 활짝 피여난 김정일화를 보시며 참 소담하다고, 고향집에 피여서 그런지 정말 아름답다고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영광의 그날에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때의 온도계와 기록일지를 보관해둔채 김경남동무는 불멸의 꽃 재배에 청춘의 열정을 고스란히 바쳐왔다.

몇달전 꽃재배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풍부한 그를 군으로 소환하려는 의견이 웃기관으로부터 제기된적이 있었다.

그때 김경남동무는 잠시 생각하던 끝에 나직이 입을 열었다.

《백두산밀영을 떠나고싶지 않습니다. 여기 정일봉기슭에서 한생을 바쳐가며 불멸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이러한 김경남동무이기에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불멸의 꽃을 피우는데 정성을 다하고있는것이다.

—올해에도 활짝 피운 김정일화의 붉은 빛으로 정일봉의 2월을 빛나게 장식하자.

김경남동무의 뜨거운 호소에 종업원들이 한마음으로 화답해나섰다.

박달나무도 쩡쩡 얼어터진다는 혹한이 겹쳐드는 날들에는 밤을 새우다싶이 하는 책임성높기로 소문난 처녀재배공 현순영동무, 언제나 말없이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남먼저 맡아나서는 김경미동무…

이들은 하루에도 왕복 20리길을 오가며 성의껏 마련한 속성부식토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고 수백개의 조직배양모들을 화분마다에 심어 자래우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있다.

한몸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서라도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꽃으로 가장 아름답게 피우려는 김경남동무와 종업원들의 마음은 이렇듯 서리꽃계절에 더 붉게 타고있다.

특파기자

백두의 천출명장을 모신 긍지를 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활짝 피워간다.
—보통강구역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불타는 충정어린 회령백살구나무

김정숙교원대학 교직원, 학생들

유서깊은 회령땅의 회령백살구나무들이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뿌리내려 무성하게 자라고있다.

따스한 봄계절이 오면 주체의 최고성지에 향기로운 꽃향기를 한껏 풍기며 하얗게 피여나는 회령백살구꽃,

그 한그루한그루의 회령백살구나무들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변함없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김정숙교원대학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깨끗한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여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 바쳐싸울수 있고 참된 삶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대학에서 문학작품창작경연이 활발히 벌어지던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글작품소개판 《오산덕》에 소개된 글작품들을 읽어가는 학장 송정희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글작품들에는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언제나 그리며 위대한 선군령장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교직원, 학생들의 깨끗한 마음과 불타는 결의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교정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열도를 대할 때마다 대학일군들의 가슴속에는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교양을 심화시켜 그들 모두를 어머님께서 지니셨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신념화, 체질화한 선군시대의 참된 교육자, 혁명인재들로 훌륭히 준비시킬 결심이 굳게 자리잡았다.

대학일군들은 참신한 위대성교양방법탐구에 사색을 모았다.

《어버이수령님을 못 잊어 하는 교원,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회령백살구나무를 심는것이 어떻습니까.》

초급당일군이 내놓은 제의에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넋이 깃들어있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못 잊어 추억하신 회령백살구나무,

회령백살구나무모를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옮겨심는 과정은 그대로 교직원, 학생들이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였다.

김영일, 정소문, 전남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회령백살구나무가 숲을 이루고 푸르러 설레일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의 전경을 그려보며 나무모구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금수산기념궁전을 더 잘 꾸리는데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어이 마련하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안고 이들이 걸은 길은 그 얼마이며 바쳐온 낮과 밤은 그 얼마였던가.

나무모운반에 필요한 운수수단들과 자재들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인 일군들, 여러 전문단위들을 찾아다니며 회령백살구나무의 생태학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낸데 기초하여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에 적응할수 있는 재배방법을 새롭게 연구완성한 김송표동무를 비롯한 교원들, 나무모의 뿌리 하나라도 얼세라, 상할세라 뜨거운 지성을 바친 교직원들과 학생들…

모든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이렇듯 뜨거운 충정에 떠받들려 수백그루의 회령백살구나무모는 머나먼 길에서 한뿌리도 상하지 않고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뿌리내리고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칠수 있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회령백살구나무모를 안고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으로 향하는 이곳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발걸음은 해마다 계속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로 달리는 이들의 마음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더욱 뜨거워졌다.

대학당조직에서는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 회령백살구나무모를 심는 사업이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의 훌륭한 계기가 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주체의 최고성지로 향하는 길, 신념의 그 길과 더불어 교직원, 학생들은 글작품집 《선군길에 울려가는 오산덕의 노래》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올려 기쁨을 드리였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교수경연과 전시회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학위학직소유자,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갈 맹세도 굳게 다지였다.

진정 주체의 최고성지에 자욱자욱을 새기며 이곳 교직원, 학생들은 어버이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 우리의 찬란한 미래와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을 거울로 삼고 정신도 풍모도 기풍도 어머님을 따라배우며 삶의 순간순간을 위대한 선군령장을 충직하게 받드는 오직 한길에서 빛내이려는 이곳 교직원, 학생들의 불타는 충정이런듯 회령백살구나무들은 주체의 최고성지에 억세게 뿌리내리며 무성하게 자라고있다.

본사기자 리은남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신천군 지남중학교에서 학생들속에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의의깊게 진행하고있다.

학교에서는 군의 여러곳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위인들의 사적자료들과 선군시대와 더불어 태여난 수많은 혁명일화들, 출판물에 실리는 위대성교양기사들을 가지고 주별, 월별로 문답식학습경연과 해설모임 등을 진행하고있다.

결과 백두산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선군조선의 기둥감들로 자라나기 위한 학생들의 학과학습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로농통신원 리광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1일 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 리룡수를 단장으로 하는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예술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되새기며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만경대 방문

총련 금강산가극단 단장 리룡수를 단장으로 하는 2.16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1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예술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니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그이께서는 이곳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였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다.

그이는 절세의 위인, 민족의 태양이시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애국애족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겠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일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최근 우리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통하여 북남당국회담을 비롯한 북남대화들을 진행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지적하고 우리 군대의 대범하고 주동적인 제의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이 열리게 된 조건에서 쌍방적십자단체들이 마주앉지 못할 리유와 조건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편지는 북남적십자회담을 2월 1일 문산에서 가질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남조선적십자사가 아직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회담날자를 다시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할것을 요구하였다.

끝으로 편지는 남조선적십자사가 우리의 동포애적인 결단과 선의의 조치에 화답하여 북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들을 하루빨리 협의, 해결함으로써 다가오는 봄부터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사업이 다시 시작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설명절을 맞이하는 각지 근로자들

비약의 숨결드높은 내 조국땅에 설명절이 다가왔다.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게 될 격동적인 해 2011년의 설명절!

온 나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는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설명절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그 어떤 적도 건드릴수 없게 하며 전체 인민이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자는것이 바로 나의 구상이며 확고한 결심입니다.》

설명절을 앞둔 이 시각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새해벽두부터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길을 펼쳐주시려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이 한껏 넘쳐나고있다.

기쁨과 랑만에 넘친 인민의 설명절과 우리 장군님의 멀고 험한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

뜨거움없이는 맞이할수 없는 우리의 설명절이다.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불굴의 의지, 위대한 리상을 안고 세계의 첨단을 확고히 돌파한 우리의 련하기계,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슬고헤치며 과감히 전진해가는 내 조국의 기상인양 하늘높이 솟구쳐오르는 희천발전소의 언제며 나날이 흥해가는 내 나라의 밝은 모습을 비껴안고 도처에 일떠서는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희한하게 변모된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

끝없는 행복과 희망, 승리의 신심과 랑만에 넘쳐 이 모든 가슴벅찬 소식을 대할 때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이 제일먼저 솟구쳐오른다.

정녕 내 조국땅에 밝아오는 설명절은 위대한 장군님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진두에 높이 모신 복받은 인민만이 맞이할수 있는 희망찬 명절이며 환희의 명절이다.

올해에도 우리 인민이 설명절을 더욱 뜻깊고 즐겁게 쇨수 있도록 온갖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지금 온 나라 방방곡곡은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고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 새로 일떠선 멋쟁이살림집들에도, 북방의 철의 도시와 동해의 항구문화도시를 비롯하여 거리와 마을, 농촌들에 설명절을 맞게 되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한껏 차넘치고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더 활짝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수도의 급양봉사망들에서는 설명절을 맞으며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갖가지 음식들을 봉사하게 된다.

올해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설명절을 맞이하는 수도시민들이 급양봉사망들에서 특색있는 료리들을 맛보며 명절을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선군시대의 자랑으로 새롭게 일떠선 공원, 유원지들에서도 인민들이 명절기간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놓고 손님들을 기다리고있다.

이 모든 기쁨과 랑만,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려는 하나의 지향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인민들의 열띤 모습들이 설명절을 맞이하는 내 조국의 숨결을 더욱 후덥게 해주고있다.

그 모습, 그 숨결에 비껴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창조와 혁신으로 빛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제와 오늘이 있고 강성대국의 희망찬 래일이 있다는 억센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올해에도 정초부터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숨결도 같이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축포성을 높이 울릴것이다.

본사기자 윤지혜

새해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 중국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연회 마련

【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100(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에서는 1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주조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류홍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김성남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영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2010년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화원이 만발한 뜻깊은 해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 중국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을 여러차례 접견하여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중국당과 인민이 과학적발전관을 틀어쥐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하였다.

올해에도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도에 맞게 조중친선을 더욱 빛내이고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류홍재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2010년은 중조관계발전에서 뜻깊은 한해였다고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교류와 협조가 활발히 진행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지난해 중국을 두차례 방문하시였다고 강조하고 그는 고위급대표단들의 래왕을 통하여 중조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발전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2011년은 중조관계발전에서 중요한 해이라고 하면서 두 당, 두 나라 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래일을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이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로씨야특명전권대사 새해에 즈음하여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과의 친선모임 마련

주체100(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왈레리 쑤히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1일 대사관에서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모임에는 량만길위원장을 비롯한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설들이 있은 다음 참가자들은 조로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을 방문하였던 황해북도친선대표단 귀국

【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을 방문하였던 리원일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황해북도친선대표단이 1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리성찬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사무장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2월은 언제나 민족의 봄, 겨레의 봄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민족의 긍지와 행복을 안고 온 겨레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사로운 2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정이 파도쳐설레이는 뜻깊은 2월이 찾아왔다.

《세계가 진동하고있다. 해마다 2월이 돌아올 때면 북의 민중뿐아니라 온 인류가 축제분위기에 휩싸인듯 한감이 든다. 김정일령수님의 탄신절을 인류공동의 경사로 맞이하려는 세계 진보적민중의 목소리가 우주공간에서 합쳐지고있다. 이 영광의 절정에 우리 민중이 서있다고 생각할 때 참으로 긍지롭다. 단군이래 우리 민족사에 이런 긍지스러운 나날이 또 언제 있었던가.》

이것은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온 누리를 휩쓰는 위인칭송의 열풍을 한없는 격정속에 체험하며 남녘의 한 인사가 터친 심장의 웨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다함없는 존경과 순결한 흠모의 정은 《천지가 잠을 깨고 세계가 평양을 우러르는 경사스러운 2월의 이 아침 우리모두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큰절을 올립시다.》고 말한 경기도의 한 주민의 가슴에도, 《민족운명의 수호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령수로 높이 모시여 마음이 든든하다. 우리 민족은 멀지 않아 통일위업을 성취하고 세계에 빛나는 강성대국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고 격정을 토로한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의 글에도, 동료들에게 《백두산에 솟아오른 태양은 바로 김정일장군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은 수천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백두산이 받들어올린 새시대의 해돋이였다. 이남민중은 백두산의 해돋이에서 변혁의 의지를 굳히고 통일의 발걸음을 백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령수님을 따르자.》고 열렬히 호소한 서울의 한 로동자의 마음속에도 어려있다.

온 인류가 불세출의 위인이시라고 높이 칭송해마지 않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행운이고 행복이며 최상의 영광이다.

남녘겨레들은 이 고귀한 진리를 선군의 위용이 힘있게 떨쳐지는 우리 공화국의 장엄한 현실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작가는 자기의 글에서 수난많은 우리 민족사를 돌이켜볼수록 절세의 위인을 높이 받들어모신 2월의 참뜻이 뜨겁게 느껴진다고 하면서 자기의 절절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력사의 봄은 위인이 안아온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2월은 언제나 민족의 봄, 겨레의 봄으로 되고있다. 2월의 봄이 있어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은 다가오고 주체의 봄과 함께 무궁번영의 새시대도 펼쳐지게 될것임을 굳게 믿고있는 우리 민중은 열렬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2월의 봄을 노래하고있다.》

한 력사학자는 《백만년을 헤아리는 인류력사의 장구한 기간 사람들은 한없는 밝음과 따스함, 영원함을 상징하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자기들의 삶을 감싸주고 운명을 빛내여줄 인류태양의 출현을 목마르게 고대하여왔다. 력사의 갈피갈피를 펼쳐보면 이름난 영웅호걸들과 정치가, 재사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인류는 그 누구에게도 태양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랜 세월 세계가 그토록 바라던 인류의 위대한 태양은 아침해솟는 동방의 나라, 다름아닌 우리 조선에서 눈부신 광망을 뿌리며 찬연히 솟아올랐다.》라고 하였다.

희세의 위인을 민족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 불태우는것은 비단 이들뿐이 아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2월의 봄날 백두산에서 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그때부터 민족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민족의 양양한 미래가 영원히 기약될수 있었다. 행성우에 우뚝 솟아 세계의 찬탄을 받고있는 우리 민족의 존엄은 바로 2월의 봄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라고 긍지와 환희에 넘쳐 말한 2월의 봄맞이회 회장의 말속에서도 백두의 봄과 더불어 더욱 창창할 내 나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는 남녘의 민심을 그대로 읽을수 있다.

정녕 그들모두의 심장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과 함께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빛나는 민족의 존엄과 위용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차있다.

그렇다.

탁월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은 그렇듯 위대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과 통일강국의 찬란한 래일에 대해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언제인가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을 련재기사로 전하는 남조선의 어느 한 인터네트홈페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었다.

《…우리 민족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모시여 세계정치무대에 당당하고 막강한 민족으로 등장하고있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로 통일되는 부강한 래일을 기약하게 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계시여 통일조국의 밝은 래일이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그이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선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다. 남녘의 동포이건, 북녘의 동포이건 우리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라 할것없이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영원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는데 앞장서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겨레의 미래를 확립하는 길이며 후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다.》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받으시는 우리 장군님을 신뢰하고 흠모하는 남녘인민들의 마음은 순결하기 그지없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과 더불어 남녘겨레가 다시금 새겨안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자주통일도, 민족의 번영도 있다는 확신이며 신념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겨레가 통일된 조국강산에서 행복하게 살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남녘겨레의 드팀없는 확신, 위인흠모, 위인칭송의 목소리는 남녘의 하늘가에 힘있게 울려퍼지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이북은 영원히 승리자로 빛날것이며 우리 민족도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을 누리게 될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펴시기에 민족의 오늘이 빛나는것이며 민족의 래일도 끝없이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김현철

국제사회계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지지

획기적이고도 중대한 제안

조선반도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은 국제사회계의 광범한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20일 남짓한 기간 세계 각국의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이 그것을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으며 100여개의 정부, 정당, 단체와 국제 및 지역기구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성명, 담화, 호소문 등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발기를 적극 지지환영하였다.

성명과 담화, 호소문 등은 일치하게 련합성명에 천명된 제안은 파국상태에 처해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중대한 제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립장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의와 진리,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정부, 정당, 단체, 국제기구와 진보적인민들이 련합성명에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을 호소하였다.

기네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대외정책적리념에 충실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중대제안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될것이라고 밝힌 각서를 우리 나라 대사관에 보내여왔다.

남아프리카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는 전세계인민들의 환영을 받고있는 조선의 련합성명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어떻게 하나 온 겨레의 념원과 의지를 모아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여나가려는 애국의 결단을 담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제안들을 적극 지지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는 조선의 중대제안이야말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정상화할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도라고 하면서 이를 적극 지지할것을 전세계의 진보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세력들에 호소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북과 남의 전체 조선민족이 사상과 정견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애국의 정신과 공동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회담에 림한다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고 자주적평화통일은 실현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과 나이제리아신문 《뉴 나이제리언》 부주필은 무장충돌과 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대결로는 현 북남관계를 결코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진보적인류는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21세기 새로운 10년대는 전체 조선민족의 희망과 통일의 년대로 될것이다고 말하였다.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이란 《로동자의 집》은 조선의 제안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조선반도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조치이라고 하면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의 장을 열어나가는데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여러 나라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조선반도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기어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가 담긴 중대제안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 남조선당국이 이 제안을 성의있게 받아들일것을 요구하였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은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의 발표는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립장과 인내성있는 노력의 발현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는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밑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 더욱 과감히 전개될것이다.

본사기자

보수언론반대투쟁에 나설것을 선언

남조선신문 《한겨레》 1월 17일부에 의하면 민주언론시민련합, 참여련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언론반대투쟁을 전개할것을 선언하였다.

단체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조, 중, 동)가 당국의 특혜를 받으며 여론외곡과 민주화말살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비난하였다.

보수언론들을 반대하는 선언발표, 시위 등의 투쟁을 벌릴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또한 49개 언론관련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조, 중, 동의 외곡보도행위를 적극 폭로하는 한편 언론악법저지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보수언론불매운동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 투쟁에 민주로동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종교단체들도 참가하게 될것이라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민주로총 올해활동계획 발표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1월 27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올해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단체가 현 《정권》의 반로조, 반로동정책에 맞서 로조를 사수하고 생존권투쟁을 적극 벌려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오늘 로동운동에 조성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로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임금인상과 로동악법개정투쟁에 앞장서며 범국민적인 규모에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당국의 로동악법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렬악한 로동조건과 부당한 해고에 맞서싸우는 로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편집물이 상영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의 망발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최근 론평을 발표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의 호전적망발을 비난하였다.

론평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어느 한 방송에 출연하여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에 대해 운운하면서 타격을 준비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북을 자극하는 망발을 늘어놓은 사실을 폭로하였다. 북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극히 위험천만한 발언은 미국이 아직까지 군사적힘에 의한 대조선압살정책에 미련을 가지고있으며 조선반도평화실현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론평은 까밝혔다.

론평은 최근 본격화되는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이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 미국의 군사적패권을 유지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앞에서는 평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선제타격을 떠드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호전적인 대조선정책을 철회할것을 론평은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실현의 절박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입니다.》

피타는 열렬한 애국의 호소가 겨레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 전체 조선민족이 뜨거운 애국충정과 통일의지를 안고 올해에 기어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은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이번 호소문이 겨레의 가슴속에 류달리 강렬한 의미로 안겨오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북남관계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하고 전쟁위험이 날로 증대되여 민족의 운명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오늘의 험악한 현실때문이다.

6.15가 안아온 통일의 뜨거운 열풍속에 풀리기 시작하던 북남대결의 동토대는 최근 몇해동안 다시 꽁꽁 얼어붙었으며 이 땅에는 끝끝내 스산하고 위험한 대결의 빙하기가 도래하였다. 남조선에서 온 민족과 전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유린당하고 반통일의 차디찬 광풍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 북남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로까지 치달았다. 이 엄혹한 현실은 체제대결책동이 낳은 북남관계의 극한점을 의미하는것이고 전쟁을 예고하는것이였다.

민족분렬사상 우리 겨레가 지금처럼 북남관계개선의 절박성을 통절히 느껴본 때는 없었다. 대화를 통해 나라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이루느냐, 체제대결의 악순환속에 전쟁의 참화를 들쓰느냐, 우리 겨레는 지금 이 력사의 분기점에 서있다. 이 엄혹한 사태를 조선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느 누가 수수방관하고 외면할수 있겠는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피줄을 이은 동포들이 서로 싸워서는 절대로 안되며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평화와 통일번영의 길을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민족사의 엄숙한 요구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그렇기때문에 온 겨레는 그에 심장으로 화답하고있는것이다.

동족끼리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녹아날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지난 3년간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대결의 방법으로는 결코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무력충돌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이러한 교훈은 북과 남이 동족대결로 외세에 어부지리를 주는 과거의 그릇된 길로 가야 하는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통일애국의 길로 가야 하는가 하는 시대적물음에 명백한 대답을 주고있다.

지금 우리 겨레는 대결로 얼어붙은 이 땅에 화합과 평화의 새봄이 오기를 고대하고있다. 그 념원을 이루어주고 현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가 바로 무조건적이고 폭넓은 북남대화와 협상이다.

꼬일대로 꼬인 현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쌍방이 대화탁에 마주앉아야 한다. 그래야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들을 찾을수 있다. 북과 남은 반드시 서로 만나 대화를 해야 하며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통일의 앞길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론하기에 앞서 겨레의 운명, 민족의 통일위업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 대세와 민심의 흐름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로 지향되고있다.

북남대화를 발전시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현실은 여전히 엄혹하다. 지난해 불과 불이 오가는 최극단상황으로까지 치달았던 전쟁위기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일시 수습되여 참혹한 전쟁의 재난은 면했으나 그 위험이 결코 가셔진것은 아니다. 남조선에서는 여전히 상대방을 자극하는 대결적폭언이 계속되고 불장난소동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동족의 진정어린 대화제의를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는가 하면 북남관계개선과 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북》으로 몰려 박해당하고있다.

반통일세력의 도전은 집요하고 악랄하지만 우리 겨레는 결코 주저와 비관을 모른다. 지난 60여년세월 외세의 간섭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으로 하여 통일운동앞에 엄중한 난관과 시련이 겹쌓였지만 우리 민족은 애국애족의 뜻으로 통일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왔다.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책동도 우리 겨레의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투지, 비상한 각오와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다. 오늘의 사태는 온 겨레에게 보다 비상한 애국적각성을 요구한다.

온갖 난관과 장애의 가시덤불을 헤치고 전진하여온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위업이 반통일의 암초앞에 지체되고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력사와 후대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것이다.

온 겨레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사명감을 깊이 통감하고 북남대화와 협상을 적극 떠밀어나가며 통일을 위한 거족적대행진에 총궐기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을 주선으로

단천시 제1인민병원에서

단천시 제1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여 자기 부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지난해에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 잘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료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병원의 일군들은 모든 의사들이 년간에 계기별로 진행되는 여러 토론회들과 학회들에 1건이상의 소론문을 제출하며 의사들의 시야를 넓히고 기술을 높여주기 위하여 중앙과 도급병원실습에 더 많은 의료일군들을 참가시키는것 등 기술발전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웠다. 계획은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의 능력과 현재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세워진것이였다.

여기에서 병원일군들이 잘한것은 자기 병원의 좁은 울타리에 만족을 느끼던 의료일군들의 시야를 보다 넓혀주기 위한데 중심을 두고 계획을 구체화한것이다.

그야말로 목표가 뚜렷하고 중심고리가 명백한 작전이였다.

이제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어떻게 대중을 발동시키고 이끌어가는가 하는데 달려있었다.

원장 윤기영, 기술부원장 한룡식동무를 비롯한 병원일군들은 새로 나온 기술서적들을 구입하는것과 함께 자신들부터 실력을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강사, 새 기술보급원이 되여 자질향상사업에 활력을 더해주었으며 의사들의 소론문집필사업을 이끌어주었다.

병원안에 혁명적학습기풍,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짬시간을 내여 새로 나온 의학과학기술도서들을 탐독하고 세계적수준의 의학기술을 따라앞서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림상기술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결과 한해사이에 수십건의 소론문들이 제출되여 시와 도, 중앙의 여러 토론회들에서 발표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의사들의 기술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지난 시기와는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의료일군들이 참가한것으로 하여 다른 단위의 림상경험들과 함께 새 기술을 도입한 치료방법들에 대하여서도 더 잘 배우게 되였다. 여러 상급병원들에 대한 실습을 통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병원의 치료예방사업에서는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병원에서는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에는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혁신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있다. 한해사이에 많은것을 보고 듣고 배운 의료일군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에 정열을 기울이고있다.

병원일군들은 의료일군들의 높아가는 열의에 맞게 학위학직소유자대렬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해에는 모두가 1건이상의 소론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면 올해에는 학위론문을 제출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이와 함께 병원의료일군들의 시야를 넓혀주었던 지난해의 성과에 비추어 올해에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여러 중앙급병원들의 전문과의사들과의 협의과정에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배우게 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에 병원의 전체 의료일군들이 참가하여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자기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는 담력과 배짱으로 의학과학기술의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심고리를 명백하게 틀어쥐고 확신성있게 밀고나가는 이들의 앞으로의 사업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한경철

20여년세월 바쳐가는 진정

남포시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남포시 항구구역 하비석동에는 시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주 찾는 집이 있다. 꽃나이처녀시절에 시안의 한 기계공장에서 혁신자로 소문났던 오성실동무의 집이다. 그가 뜻하지 않은 일로 작업도중에 부상을 당한것은 20여년전이다. 그때 그는 일터를 떠났지만 오늘도 공장에서는 그를 자기들의 명예종업원으로 등록하고 뜨거운 진정을 다해가고있다. 김윤문, 임호순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언제나 오성실동무의 가정형편을 손금보듯 알고있으며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여러차례 오성실동무의 집을 찾아 문화기재들과 생활필수품들을 안겨주면서 랑만에 넘쳐 살도록 고무해주었다. 하비석동의 일군들과 3인민반 반장 최유화동무도 오성실동무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고있다. 이들뿐아니라 시체신관리국, 고려약공장, 항구구역상업관리소, 와우도구역상하수도난방사업소를 비롯한 남포시의 여러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여 오성실동무를 잘 도와주고있다. 얼마전에도 오성실동무의 집으로는 시체신관리국과 고려약공장 일군들인 김명남, 최응래동무들, 항구구역상업관리소 일군인 곽봉숙동무와 그 아래단위 종업원인 리춘숙동무, 와우도구역상하수도난방사업소의 리용성, 항구구역인민위원회 보건부 아래단위에서 일하는 리혜숙동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방은 춥지 않은가, 몸은 건강한가고 친부모인듯 보살펴주는 그들앞에서 오성실동무는 목이 꽉 메여올랐다.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오성실동무는 언제나 신심과 랑만에 넘쳐 생활하고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생활은 위대한 장군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내 나라 어디에서나 꽃펴나고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신의주의학전문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교육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미래인 새 세대들의 질적상태가 규정됩니다.》

올해공동사설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신의주의학전문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의학기술인재육성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교장 리만섭동무는 교원들속에 올해공동사설의 기본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강좌별로 올해 결의목표들을 실속있게 세우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학교적인 결의목표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세운 일군들은 시작부터 사업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따라세워 계획한 사업들이 일정별로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하고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의 소유자들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고있다.

부교장 마정남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은 전공분야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최신교육발전추세에 맞게 혁신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학교에서는 지난 몇해동안 고심어린 투쟁을 벌려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전공과목교육을 현대화하며 실천실기교육을 강화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토대하여 올해에 교원들의 교수자질을 한급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심을 두고 자질향상사업을 본때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전공기초과목과 첨단기술과목들에 대한 강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콤퓨터실과 외국어시청각실을 보다 훌륭히 꾸리며 앞선 교수방법들에 대한 경험토론을 심화시켜 모든 교원들속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짜고들고있다.

교원들속에서 과학탐구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학교에서는 지난해에 여러명의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배출되였으며 그것은 곧 높은 실력으로 이어져 나라의 의학기술발전과 후대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기간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학교에서는 년초부터 새로운 연구과제를 담당한 교원들에 대한 집체적인 학술적방조를 강화하면서 학위론문집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인재대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갈 학교일군들과 교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는 훌륭한 교육과학성과들로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 한마음으로 —기관차체육단에서—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선수들 리충성 찍음

2011년을 새로운 번영의 해로 빛내일 조선의 결심

새해공동사설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널리 소개선전, 적극 지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인 새해공동사설은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신화통신,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이란의 이르나통신, 미국의 AP통신,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수리아신문 《알 바아스》, 웰남중앙TV방송, 영국의 BBC방송, 우간다국가라지오방송 등 100여개 나라의 수많은 통신, 신문, 방송이 공동사설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브라질공산당, 뻬루공산당, 뽈스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등 각국의 정당, 단체들과 지역 및 국제기구들에서 인터네트홈페지와 블레찐을 통하여 공동사설을 적극 소개선전하였다.

새해공동사설을 연구보급하기 위한 토론회, 강연회, 독보회가 파키스탄, 스웨리예, 남아프리카, 메히꼬 등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공동사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방도가 뚜렷이 반영된 강령적문헌이다.

올해는 조선인민이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이다.

21세기의 새로운 년대들도 로숙하고 세련된 김정일정치의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빛날것이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위원장은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격찬하였다.

민주쭝고청년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드세차게 벌려 그이의 탄생 100돐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한편 70여개 나라의 정당,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여 공동사설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새해공동사설은 경공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하여서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 밝혔다.

우리는 공동사설에 천명된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선인민의 반제자주적립장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공동사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세계에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로씨야의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새해공동사설은 하루빨리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의 무한대한 열정을 반영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사설은 김일성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구현한것이며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로동당의 활동원칙을 반영하고있다, 공동사설은 세계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신봉자들과 자주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련대성 에꽈도르 과란다협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2011년을 희망의 해, 새로운 번영의 해로 빛내이려는 조선의 결심을 지지한다.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말씀대로 조선인민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것이다.

본사기자

꾸바에서 호쎄 마르띠 생일 158돐 기념

꾸바에서 1월 27일 꾸바인민의 민족적영웅 호쎄 마르띠 생일 158돐을 기념하였다.

이날 수도에서는 꾸바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 호쎄 라몬 마챠도 벤뚜라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이 청년들과 함께 아바나종합대학으로부터 호쎄 마르띠동상이 세워져있는 공원까지 홰불행진을 하였다.

그들은 호쎄 마르띠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이어 공원에서 기념음악회가 진행되였다.

이날 나라의 여러곳에서도 기념행사들이 있었다.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챠베스 프리아스가 1월 28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앞으로 10년내에 나라에서 빈궁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가정들에 살림집이 차례지게 하며 주민들의 식량안전을 보장하는것이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량안전과 관련하여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와 같은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 청해성에서 소수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5년동안 많은 학교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확장하였다.

또한 이 기간 2만명의 교원들을 양성하여 학교들에 파견하였다.

현재 각급 학교들에서 공부하고있는 소수민족학생수는 54만 6 400명에 달한다. 청해성은 인구의 거의 절반이 소수민족주민들로 구성되여있다.

○중국 광동성에서 제11차 5개년계획기간 에네르기절약사업을 통해 5 600만t의 석탄을 절약하였다.

성에서는 제12차 5개년계획기간 이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국가가 하달한 에네르기절약과제를 기한내에 수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중국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지난해 석탄생산량이 그 전해에 비해 1 260만t 증대되였다.

자치구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1 000만t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신강위구르자치구는 전국적으로 석탄매장량이 풍부한 곳의 하나이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현 이란년도의 첫 9개월동안에 공업품 및 광물수출액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5.17% 증가하였다. 1월 24일 이 나라 신문 《카이한 인터내슈널》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해 화학공장을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동부쟈바주에 새 화학공장이 일떠서게 되는데 공장에서는 년간 100만t의 각종 화학비료를 생산하게 된다.

나라에서 공장착공식을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베네수엘라정부가 최근 주민들의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나라에서는 앞으로 2년내에 수도와 여러 주들에 총 4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목표를 내세우고 현재 2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고있다.

1월 26일 이 나라 대통령 우고 챠베스 프리아스는 정부가 건설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고 밝혔다.

먄마에서

먄마의 카친주에 새로운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여 최근에 조업하였다.

4기의 발전기가 설치되여있는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24만kW이다.

1월 24일 이 나라 신문 《뉴 라이트 오브 먄마》가 이에 대해 밝혔다.

꼴롬비아에서

꼴롬비아경찰이 1월 19일 메따주에서 반마약작전을 벌리였다. 작전과정에 7.5t의 마리후아나가 압수되였다.

지난해에 이 나라에서는 약 222t의 각종 마약이 적발, 몰수되였다 한다.

공화국의 날 기념

인디아에서 1월 26일 공화국의 날을 기념하였다.

이날 수도에서 열병식과 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대통령 프라티바 데비싱 파틸이 각계층 군중과 함께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열병식에서는 미싸일, 전투기, 어뢰탐지전자체계 등 인디아가 자체의 기술로 개발한 최신무장장비들이 공개되였다.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을 지지

빠라과이외무성이 1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에 기초하고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만을 인정할것이라고 밝혔다.

빠라과이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한편 뻬루외무상 호쎄 안또니오 가르씨아 벨라운데가 1월 24일 한 라지오방송연설에서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을 지지하는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앞으로 창설될 팔레스티나독립국가가 자유로운 주권국가로 인정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간판밑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월 23일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에 무인기를 리용한 두차례의 미싸일공격을 가하여 7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였다.

미군의 이러한 살인만행은 현지주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1월 23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시에서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2명의 팔레스티나인로동자가 부상을 입었다.

이보다 앞서 1월 2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시에 땅크포사격을 가하여 1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상기후현상으로 벼생산 감소

필리핀에서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가물로 지난해 농사계절에 벼생산량이 2009년에 비해 3% 감소되였다.

정부에서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1월 17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세멘트생산

자연피해

—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주의 산간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가 확대되고있다.

큰물로 현재까지 사망자수는 610명으로 늘어나고 100여명이 행방불명되였다.

피해지역에서 구조작업이 계속 진행되고있다.

이 나라 정부는 많은 인명피해가 난것과 관련하여 3일간의 전국적인 애도기간을 선포하였다.

— 미국 뉴잉글랜드지방의 여러 주들에서 1월 12일 강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폭설을 동반한 폭풍으로 10만채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도로들이 막혀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마싸츄세쯔주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였다.

— 남아프리카에서 최근 계속되는 무더기비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1월 24일현재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천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또한 철도수송이 마비되고 주요곡창지대들이 물에 잠겼다.

정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일본과 미국 대규모합동군사연습 감행

일본과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군사연습소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1월 27일 일본의 규슈섬에서 대규모의 일미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였다.

약 1만 5 000명의 미군병력과 4 500명의 일본륙상 《자위대》병력이 동원된 이날 연습에서는 일본에 대한 미싸일공격과 게릴라전 및 전면전쟁을 가상한 모의연습이 벌어졌다. 연습은 2월 3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중동평화 《조정자》의 범죄적정체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팔레스티나와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이 중동지역의 평화과정을 파괴하고 이 지역에 큰 위험을 조성하기때문에 중지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동지역의 비정상적인 현실을 반영한 이 결의안은 국제사회계의 호응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런데 이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행정부는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규탄하는 아랍—팔레스티나결의안이 채택되는것을 반대한다는것을 팔레스티나에 정식통보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공공연히 지지비호하며 부채질하는것과 같다. 이로써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평화를 파괴하는 공범자라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까지 미국은 마치도 저들이 중동평화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놀아대왔다. 최근시기에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에 직접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특사를 파견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직접회담이 시작되자 미국은 그것을 중동평화를 바라는 저들의 노력의 산물로 광고하면서 생색을 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음으로양으로 이스라엘을 편들어주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을 인정하라고 팔레스티나에 강박하였다.

팔레스티나로서는 도저히 접수될수 없는것이였다. 이것을 알고있는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놀아대며 유태인정착촌건설을 계속 밀고나갔다. 이로 하여 직접회담이 파탄되자 미국은 앞에서는 제법 이스라엘을 꾸짖는것처럼 너스레를 떨었다.

미외교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정책강행에 《유감》을 표시하였는가 하면 아랍국가들이 보다 포괄적인 아랍—이스라엘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팔레스티나—이스라엘직접회담을 재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소리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이 이번에 정작 일이 다른 방향으로 번져지자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본심과 정체를 드러내고말았던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비호로 하여 중동평화과정은 위험에 처하였다. 미국의 비호두둔에서 힘을 얻은 이스라엘은 로골적인 반팔레스티나책동에 매달리고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와의 예민한 분쟁지역인 동부꾸드스에 1 400채의 유태인살림집을 건설할 대규모계획을 검토하고있다. 만일 이 계획이 강행되면 동부꾸드스에서 유태인정착촌은 더욱 확장되고 수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이 이곳에서 쫓겨나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교인들속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쫓겨나게 될 팔레스티나인들을 못박아둘 《죽음의 수용소》들을 내와야 한다는 소리까지 튀여나오고있다. 이것은 이스라엘당국자들의 의사를 대변한것으로 된다고 할수 있다. 로골적인 타민족탄압을 제창하는것과 같은 망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있는 이스라엘당국자들의 행동이 그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유태인정착촌문제해결은 중동평화과정을 추진하는데서 기본요구의 하나로 된다. 이것을 떠나서 중동평화에 대해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정책을 지지비호하는 립장을 명백히 한 이상 더는 중동평화 《조정자》로 나설 체면과 명분이 없게 되였다.

미국이 진정으로 중동평화과정이 진척되기를 바란다면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정책을 비호두둔하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리학남

서방의 불공정한 처사에 반발하여

최근 뛰르끼예가 유럽동맹의 불공정한 처사에 반발하여 서방을 멀리하는 대외정책을 실시하고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 1월 13일 뛰르끼예외무상은 사증문제에서 유럽동맹이 뛰르끼예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유럽동맹이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는 사증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자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뛰르끼예가 다른 나라들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대해 참을수 없다.》라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뛰르끼예의 유럽동맹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있다, 우리는 유럽동맹에 그 어떤 특수한 대우를 해줄것을 요구한적이 없다, 우리는 단지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랄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유럽동맹의 준성원국인 자기 나라가 유럽동맹 가입후보국도 아닌 나라들보다도 못한 차별대우를 받고있는것은 불공정하다고 언명하였다.

뛰르끼예는 유럽동맹이 자기 나라를 불공평하게 대하고있는데 대응하여 이란, 수리아 등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아랍지역, 중앙아시아나라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해나가고있다. 특히 이란과의 관계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란은 반제자주적인 나라이다. 서방세력은 다른 나라들이 반제자주적립장을 꿋꿋이 지켜나가고있는 이란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대해 못마땅해하고있다. 그러나 뛰르끼예는 그에 개의치 않고 이란과의 경제협력, 무역교류사업을 활성화해나가고있다.

지난 1월 9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뛰르끼예에네르기자원상과 이란의 해당 관리들이 협상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에네르기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확대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현재 이란과 뛰르끼예사이의 무역액은 10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이란은 그 액수를 300억US$로 늘이려 하고있다. 또한 두 나라는 공동상업회의소를 내오려 하고있으며 경제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확대하려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두 나라는 이란의 천연가스를 뛰르끼예를 거쳐 수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뛰르끼예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토성원국이다. 그러나 뛰르끼예는 서방이 자기 나라가 이슬람교국가라는것을 걸고 종교와 인권문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따돌림하면서 자국을 색안경끼고 보는데 대해 좋지 않게 여기며 반기를 들고있는것이다. 뛰르끼예는 지난해 유엔안보리사회의 대이란제재결의안표결시에 반대표를 던지였으며 미국의 유럽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을 뻐젓이 반대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티나에 대한 인도주의지원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있다. 지난해 5월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로 인도주의물자를 싣고가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의 기습공격을 받았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뛰르끼예인들이였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쟁도발직전에 미군의 자국령공리용과 기지사용권을 거부한 나라도 뛰르끼예였다.

지난해 10월 뛰르끼예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기타 나토성원국들과 진행하기로 하였던 합동군사연습을 취소한데 뒤이어 12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증파할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최근시기 뛰르끼예에서는 반미감정이 높아가고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43%가 뛰르끼예에 가장 큰 위협으로 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지난해 어느 한 회의에서 뛰르끼예대통령은 자국은 아랍세계가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면서 아랍은 뛰르끼예의 두눈과 같다고 말해 아랍나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그는 특히 미국,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수리아는 자기 나라와 한가족의 형제들과 같다고 하면서 뛰르끼예는 곧 수리아이고 수리아는 곧 뛰르끼예라고 강조하였다. 그후 뛰르끼예는 수리아, 레바논, 요르단과 사증없이 오갈수 있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해말 수리아대통령과 뛰르끼예군 부총참모장이 두 나라사이의 군사협조문제를 토의한 사실, 뛰르끼예와 만협조리사회가 에네르기, 무역, 공업, 투자, 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 협조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 뛰르끼예가 중앙 및 서아시아지역 경제협조기구 제11차 수뇌자회의를 주최하고 각 성원국들이 경제협조를 강화하여 옛 비단길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실, 뛰르끼예, 이란, 아제르바이쟌 외무상들이 3개국사이의 협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사실, 뛰르끼예가 동부꾸드스에 유태인정착촌을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책동을 규탄하고 팔레스티나의 한 공업지구건설에 1000만US$를 기부할것을 약속한 사실 등은 뛰르끼예가 미국과 서방에 치중하던 종래의 정책을 재검토하고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 아랍지역, 중앙아시아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로 방향전환을 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이것은 새 세기 국제관계에서 나타나고있는 새로운 변화의 반영이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 채일출

끝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외국의 벗들이 올린 선물들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의 정이 뜨겁게 어려있다.

《2월의 아침》

선물 《2월의 아침》은 방글라데슈자주연구학회 성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유화이다.

이 유화는 세기의 려명인 듯 야자수설레이는 남방의 지평선우로 솟아오르는 태양이 온 누리를 붉게 물들이는 뜻깊은 2월의 명절날 아침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학회성원들이 진귀한 꽃들로 꽃바구니를 엮고있는 장면을 형상하였다.

시대의 지향과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생동하게 담은것으로 하여 선물 《2월의 아침》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백두산의 해돋이》

조가비공예 《백두산의 해돋이》는 중국홍콩의 한 회사 사장이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린 선물이다. 이 공예품은 커다란 액틀속에 조가비로 백두산의 장엄한 해돋이를 형상한것이다.

사장은 이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공장에서 가장 우수한 기능공 60명을 뽑아 특별제작조를 무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진귀한 조가비들을 모아들였다.

그후 천연조가비들을 다듬어 1년동안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진귀하고 훌륭한 《백두산의 해돋이》를 완성하였다.

그들은 선물을 자그마한 손상도 없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공예품을 실을수 있는 차를 특별히 마련하여 홍콩에서 평양까지 운반해왔다.

《수정꽃병》

선물 《수정꽃병》은 유럽의 어느 한 나라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린것이다. 그들은 세기의 걸출한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후세에 길이 전할 깊은 뜻을 담아 이 선물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오랜 력사를 가진 유명한 도자기공장을 찾아가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기술공정을 익히며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였다.

선물 《수정꽃병》은 붉은색바탕에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밝게 모시고 국화꽃송이로 테두리를 둘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정을 담고있는 선물 《수정꽃병》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의 해발로 온 누리를 찬란히 비쳐주고계시는 김정일동지는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뜨거운 축원과 존경의 마음으로부터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수정꽃병〉을 마련하였습니다.》

본사기자

철도운수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에서 려객 및 화물수송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는데 맞게 철도운수의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철도의 고속화에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베이징—상해고속철길구간에서 신형고속렬차의 시험운행이 진행되였다. 중국이 자체로 연구개발한 이 신형고속렬차의 시속은 480㎞를 넘어섰다.

이것은 세계적인 고속철도운행시험에서 최고속도로 되며 중국의 철도운수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락후하였던 중국의 철도운수부문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오늘은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도달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늘어나는 려객수송수요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고속철길을 새로 건설하고 철도운행을 고속화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현재 중국의 고속철도망은 규모와 길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서고있다.

과학적발전관에 기초하여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이 그 이름에 반영된 《조화》호렬차가 중국자체의 설계와 기술로 연구개발됨으로써 철도운행의 고속화를 담보해주고있다.

이미 베이징—천진, 무한—광주, 베이징—심양, 정주—서안을 비롯한 여러 구간에서 철도운행의 고속화가 실현됨으로써 철도의 전반적현대화수준이 높아지고 수송능력이 크게 늘어나 경제와 사회발전을 믿음직하게 추동하고 인민들의 편의를 크게 도모해주고있다.

중국에서는 올해에 베이징—상해, 할빈—대련, 베이징—석가장구간을 비롯하여 주요도시들사이의 고속철도망을 형성하고 가까운 기간에 전국의 모든 성과 시, 자치구를 련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할 전망목표를 내세우고 철길건설과 기술일군양성 등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있다.

한편 려객수송에서 사소한 사고도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속철도망의 설계와 건설, 운영단계에서 안전문제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 여러가지 대책을 취하고있다.

또한 명절기간을 비롯하여 려행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렬차표판매와 봉사 등에서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려행을 보장하는 사업이 당적, 국가적사업으로 진행됨으로써 중국인민들이 사회주의사회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깊이 느끼고있다. 철도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여 전반적경제장성을 추동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국인민의 투쟁은 끊임없이 전진하게 될것이다.

베이징발 본사특파기자 리영

ㄱ-11023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